Children's Literature

아동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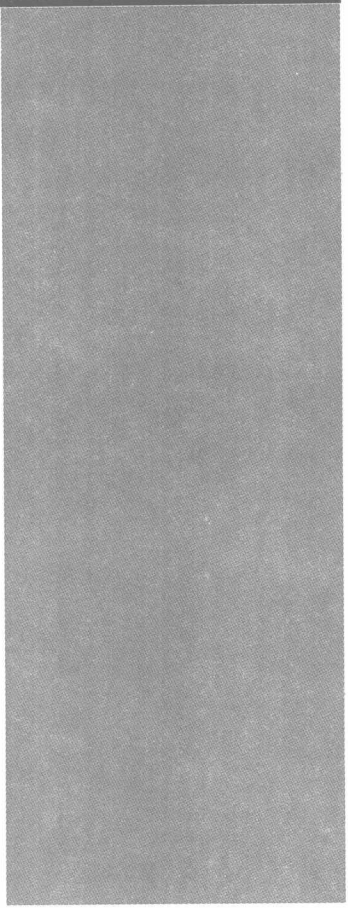
2009년 여름호
통권 제127호

○비 오는 날
○두만강의 아들
○세 독왕의 끝장
○거미동네의 풍파
○달나라 게집
○버들피리 불던 소꿉시절
○뒤바뀐 이야기
○엄마의 들가방
○무우로 변한 산삼
○나어린 명관

연변인민출판사

아동문학

중국조선족순수아동문학전문지



2009년 여름호
(통권 제127호)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리영철
책임교정: 김홍화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儿童文学. 2009夏季版: 朝鲜文/ 金贤舜主编.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6
ISBN 978-7-5449-0536-7

Ⅰ.儿... Ⅱ.金... Ⅲ.儿童文学-作品综合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Ⅳ.I28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034539号

儿童文学(夏季版)

出版：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延边人民出版社
开本：880×1230 1/32 印张：7 字数：200千字
标准书号：ISBN 978-7-5449-0536-7（民文）
版次：2009年6月 第1版 2009年6月 第1次印刷
定价：15.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影响阅读，请与印刷厂联系调换。

연변경제동물연구소

"송웅표"웅담분 이모저모

웅담분의 질보장은 기업의 생명

곰들의 락원

찾아가는 방법: 연길시예술극장 서쪽옆
전화: 0433-2857907, 0433-2825628

제4회 "송동익" 아동문학상 시상식 이모저모

개회사를 하시는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 아동문학학회 회장 김현순선생님

심사평을 발표하시는 연변조선족아동문학학회 감사 류흥식선생님

축사를 하시는 연길시 연신소학교 부교장 김해련선생님

사회를 하시는 연길시 연신소학교 교도주임 김향화선생님

연변인민출판사 총편조리 최리화선생님과 장원상 수상자

–연길시 연신소학교 4학년 1반 리혜경학생

수상자와 주최측 지도자 합영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Children's Literature
아동문학
2009년 여름호
통권 제12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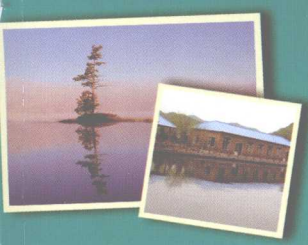
차례

소설동네:
001/ 비 오는 날……손룡호
024/ 왕박아……박일호
074/ 두만강의 아들……허두남
158/ 도전……김동식

동화마을
015/ 세 독왕의 끝장……범석림
037/ 거미동네의 풍파……윤호남
061/ 달나라 게집……정호원
137/ 기기박사와 토토 계렬동화(4)……천 몽
192/ 수혈……백 운
047/ 장꿩과 수탉(우화)……최 준

수필가게
190/ 버들피리 불던 소꿉시절……김장혁

동시코너
165/ 이슬(외 1수)……강효삼
166/ 뒤바뀐 이야기(외 4수)……강 길
172/ 진달래(외 2수)……박영옥
174/ 장막(외 4수)……리종복
178/ 정거장……강정룡
179/ 앵두(외 1수)……오정식



주　　필: 김현순
책임편집: 리영철
기술설계: 정려란

편집부전화
0433-2902125
◉편집부주소
中国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延边人民出版社
《儿童文学》编辑部
우편번호: 133000
E-mail: admh123@hanmail.net

흑룡강성 동녕현아동문학학회 회원 동시특집

069/ 나물 짝자꿍(외 1수)……정경남
070/ 엄마의 들가방……신매화
071/ 할머니 머리칼(외 1수)……신금화
072/ 가을단풍……안봉록
073/ 매돌……위정호

신인동시인 작품특집

123/ 귀뚜라미(외 4수)……한설매
127/ 가을나무잎(외 3수)……황희숙
130/ 하늘(외 6수)……김영준
135/ 별찌(외 2수)……리련화

옛이야기

181/ 무우로 변한 산삼(외 2편)……리군필
214/ 나어린 명관……정해철

무대작품

196/ 어머니의 회초리……최　건
209/ 손……리종훈

기획조명

050/ 아동문학가 김례삼과 그의 동시……김례삼
056/ 아동문학가 김례삼선생님 생평소개……최문섭
059/ "고개길" 넘어 하늘나라로 가신 할아버지(추모시)……최문섭
116/ 끈질긴 탐구 풍만한 열매……김응룡

· 소설 ·

비 오는 날

□ 손룡호

1

동천이 무겁다. 련 며칠 낮게 드리운 침침한 구름덩이가 구질구질 비를 그냥 쏟는다. S현 남산밑의 흙길은 질척질척하다. 노랗고 빨간 비닐비옷을 입은 남자애와 녀자애가 진창길에 들어섰다. 비옷은 책가방을 덮다나니 앞단추를 채우지 못하였다. 남자애는 바지가랭이를 무릎밑까지 걷어올렸고 녀자애의 치마깃은 무릎에서 춤추었다. 노랗고 빠알간 비닐비옷은 녀자애가 어느 노는 날 엄마와 함께 현성중심에 있는 시장으로 쇼핑갔다가 졸라서 남자애의것까지 산것이였다. 그 발목 넘는 노란 장화와 빠알간 장화는 남자애가 아버지한테 졸라서 산것이였다. S현 남산밑 맨마지막 언덕우 단층집 동쪽 끝집과 서쪽 끝집 사

이의 두 아이는 유치원부터 소학교까지 한반에 다니였다. 끔찍한 소꿉친구였다.

길우에 옴폭 패인 발자욱자리엔 물이 흥건히 고여있다. 그 우로 깡총깡총 자그마한 발자욱 네개가 서로 엇박자를 치면서 새로운 발자욱을 만들어간다. 갑자기 두개의 발자욱이 성급하다. 물이 많이 고인 자욱의 물고를 발로 콱 디뎌 터치운다. 장난이다. 흙물이 옆으로 튕긴다.

"야, 좀 살랑살랑 걸어라. 흙물이 튄다."

"히히, 너도 나처럼 해라!"

"싫다!"

남자애는 물이 고여있는 자욱의 아래쪽 흙을 발로 디디면 고였던 물이 아래로 쪽 흘러가는 모양이 퍼그나 재미있었다. 또 한번 콱 딛는다. 장난질에 녀자애의 말이 귀에 들지 않았다. 그 물이 튕겨서 녀자애의 치마자락을 어지럽히는것을 감쪽같이 잊고 말이다.

"봐라. 내 치마에 흙물이 묻었다."

녀자애는 울상이다. 이름이 리나였다. 남자애는 준호였다. 준호는 그제야 장난을 멈추고 리나의 치마자락을 힐끗 훔쳐보았다. 리나의 선좋은 하얀 다리와 치마깃에 검은 흙탕물이 묻어있었다. 자기의 장화안에도 물이 가득 튕겨들어가서 걸을 때마다 철렁거렸다. 준호는 머리뒤를 긁적이였다. 리나에게 물을 튕겨서 미안해서였다. 본의가 아니였다. 준호는 눈알을 뙤록거리더니 제꺽 허리를 굽힌다. 자기 옷소매로 리나의 다리에 묻은 흙물을 닦아준다.

"야, 일없다. 그러면 니 옷이 쓰게 되니?"

"일없다. 씻으면 되지 뭐."

"또 선생님한테 욕먹겠다. 어지럽다고!"

준호는 리나의 다리에 묻은 흙물을 닦기에 여념이 없다. 여러가지를 생각할 나이가 아니였다. 또 생각하고도 싶지 않았다. 산아래 학교로 오갈 때면 꼭꼭 서로 기다려서 나란히 오가는 꼬마친구라는것만을 소중히 여기고있었다. 준호 엄마는 돈벌러 간다면서 외국으로 간지도 퍼그나 오래다. 다섯살때 갔으니 인젠 삼년에 난다. 지난해 어느날인가 갑자기 밤중에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를 한바탕 골려주는 모양이였다. 아버지는 그때부

터 "망할년!"이라고 욕하면서 자주 술을 마시고 곧잘 취하였다.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준호는 커다란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지고 눈에 생기가 없고 입에서 술내가 확확 풍길 때면 냉큼 눈물이 돌면서 코구멍에서 물이 쪼르륵 흘러내리군 하였다.

"아빠, 술 마시지 마. 엄마가 어쨌길래?"

그럴 때면 아빠는 준호를 넓다란 가슴에 꼭 끌어안고 깊은 숨을 몰아쉬며 준호의 어깨를 다독여준다. 준호도 아빠의 목을 꼭 끌어안는다.

"준호야, 넌 아빠의 심장과 같아. 근심말어. 아빠는 우리 준호곁을 떠나지 않는다."

"엄마소식 있어?"

아빠는 인츰 입을 열지 않는다. 어린 준호에게 말할수 없었다. 엄마가 아빠와 리혼하겠다고 제기해왔고 자기가 이미 리혼수속을 다 마친 일을 말이다. 어디에 혼이 나갔는지 남편과 자식까지 다 포기하고 새 삶을 살겠다는 안해에게 비굴하게 빌고 싶지 않아서였다. 응해주고만것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저 그렇게 되였었다.

"엄마는 오래오래 돈 많이 벌어 네가 청년이 될 때 온단다."

거짓말을 할수 밖에 없었다. 어린 준호도 육감적으로 아빠가 자기를 달래기 위해 하는 소리라는것을 알아들었다.

2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준호는 리나다리의 흙탕물을 다 닦고 리나가 괜찮다고 닦지 말라는데도 기어코 치마깃에 묻은 흙물을 닦아갔다. 잘 벗겨지지 않았다. 그러니 준호는 흙물자리에 침을 뱉었다. 그러면 닦아질것 같았다. 리나가 치마깃을 쥔 준호의 손을 톡 쳤다.

"야, 더럽게 침은 왜 뱉어!"

"그럼 어쩌니, 벗겨지지 않는데? 흙물로 벗기래? 그래도 내 침이 더 깨끗하지."

리나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다. 학교교실에 들어가서 애들로부터 "너네 남산흙길에서 사는 애들은 그냥 흙물범벅이구나." 하는 소리를 듣기 싫었다. 아니꼽게 흘기는 선생님 눈길도 싫고 말이다. 정말로 언제면 자기네 집도 허물고 층집을 지을가? 그러면 깨끗하고 곧바른 콩크리트길도 생겨날텐데 말이다. 아래 단층집까지 허물어버렸으니 그런 날도 멀지 않았다. 비오는 날이 제일 싫었다. 여직껏 제일 재미있고 신나게 보아온 일이 어른키 넘는 커다란 바퀴가 달린 차가 커다란 입을 쫙 벌리고 드르렁드르렁 낡은 단층집을 한입에 밀어 허물어뜨리고 또 와그르르 담아서 트럭에 싣던 모습이였다. 사람들이 살던 집이 졸지에 망가지고 그 잔여물들이 모조리 트럭에 실려 나가더니 또 이발이 드센 굴착기가 와서 땅을 파헤친다. 세상은 있던것이 없어지고 새것이 일어서는 세상이였다. 낡은 집이 무너지고 새집이 일어선다. 있던 아빠가 로씨야로 갔단다. 리나의 돌생일을 쇠고 말이다. 리나는 여덟살을 먹도록 아빠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올봄 5월 어느 비오는 날이였다. 리나가 학교갔다 집에 들어서니 어떤 낯모를 녀자가 구들에 앉아있었다. 집안엔 짙은 향수내가 꽉 찼다. 로씨야향수였다. 엄마는 창문을 향해

서서 비오는 밖을 내다보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말이다. 들어선 리나를 보고 낯선 녀자가 낮은 소리로 물었다.

"네가 리나이니?"

리나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곱게두 생겼구나."

그리곤 구들로 올라오는 리나의 손을 잡아당기며 자기 품에 꼭 안아주었다. 어머니 젖무덤보다 퍼그나 큰 품이였다. 이윽고 낯선 아줌마는 일어났다.

"마음 크게 먹고 재가하라이."

낯선 녀자는 리나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왔었다. 자기는 이미 로씨야에서 다른 녀자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이까지 낳아 살고있으니 자기를 기다리지 말고 재가하여 살라는것이였다. 리나를 잘 키워달라면서 3천딸라를 보내왔다. 돈벌러 보낸 남편이 그대로 가버리였다. 애오라지 언제면 돌아오겠는가고 애면글면 7년을 기다려왔건만 딸 리나가 여덟살을 먹고 학교 붙어서 날아온 소식은 숨 막히는 소식이였다.

3

리나와 준호는 학교교실에 들어섰다. 아이들의 눈길이 곱지 않았다. 장난꾸러기남자애 몇몇이 리나의 얼룩이 간 치마와 장화안에 물이 차서 벌렁벌렁 소리나는 준호의 신발을 보면서 히죽거린다.

"얼룩치마 흙치마, 장화도 물장화!"

"둘이 또 욕먹겠다. 하하하!"

"우리 반 위생점수가 또 깎인다!"

"이래가지구 학교로 오니? 선생님이 들어오기전에 빨리 나가라!"

코구멍밑에 코딱지가 붙은 실팍한 애가 리나를 나가라고 콱 밀었다. 리나는 허망 뒤로 벌렁 넘어갔다. 다음 준호를 콱 민다. 준호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뒤로 몇걸음 밀리웠다. 자기를 민것은 그래도 참을수 있지만 리나를 밀어 넘어뜨린것은 도저히 참을수 없었다. 학교를 함께 오가는 친구, 집에 가서 공부 배워주는 친구, 아빠 없어 불쌍한 친구, 엄마 없어 외로울 때면 서로서로 재잘대며 외로움을 달래는 친구, 둘의 맘속엔 눈동자 같이 소중한 친구였다. 누가 리나를 욕보게 한다면 작은 주먹이 쥐여지고 작은 발이 달음박질친다. 준호는 발끈 주먹을 쥐였다. 아이들은 선손을 써서 상대의 급소를 찌르면 이기는것이다. 준호는 잽싸게 뚱보의 코등을 후려갈겼다. 대번에 코피가 터지였다. 뚱보는 뚝뚝 떨어지는 코피를 보자 와— 하고 울음보를 터뜨렸다. 어린아이들은 담이 약했다. 피를 보면 운다. 이때 담임선생님이 들어섰다. 울상이 되여 초췌해서 서있는 리나, 눈에 파란 불을 켜고 주먹쥐고 서있는 준호, 코밑이 뻘건 피투성이가 되여 울고있는 뚱보, 소란스러운 애들의 눈길… 선생님은 졸지에 심성이 앵돌아졌다.

"이게 뭡니까? 아침부터!"

그리곤 피흘리는 뚱보애를 붙들고 위생소로 향했다. 처치를 하면서 자초지종을 알게 된 선생님은 뚱보를 데리고 반으로 돌

아왔다. 반의 간부애들이 선생님앞으로 다가가서 미주알고주알 뇌까렸다. 본대로 입을 재잘거렸다. 뚱보애는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리면서 코구멍에 하얀 솜을 막고 앉아 준호의 뒤통수만 노려본다. 힘으로는 준호가 상대가 아니였다.

(보자, 하학할 때.)

뚱보애는 현정부 어느 부자집 아들이였다. 선생님도 명심하는 집의 애였다. 그렇다고 아빠 없는 리나나 엄마 없는 준호를 멸시하는 선생님은 아니였다. 선생님은 교실강단우에 올라섰다. 출석을 불렀다. 다 부른후 조용히 말을 뗐다.

"우리 반은 몇학년 몇반입니까?"

"1학년 2반!"

학생들은 가슴을 펴고 두손을 뒤에 갖다붙이고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뽑았다.

"학생이 몇입니까?"

"45명!"

"우리는 어째야 합니까?"

"학습을 잘하여 나날이 향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단결해야 합니다!"

"싸우면 됩니까?"

"안됩니다!"

"놀려주면 됩니까?"

"안됩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됩니까?"

"안됩니다!"

"옳습니다. 오늘 첫시간은 작문시간입니다. 오늘아침 우리 반에서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5백자 좌우의 작문을 짓겠습니다. 작문제목은 자기절로 답니다."

아이들은 작문짓기에 여념이 없었다. 글짓기에 파악이 없는 애들은 연필만 매만지면서 자꾸 옆의 애들의 글을 훔쳐보았다. 리나와 준호도 제목을 달고 써내려갔다. 신통히도 둘의 제목은 같았다. "비오는 날"이였다. 두 애는 아침에 뚱보와 맞붙은 일보다 자기 맘속의 아픔을 써나갔다. 리나의 글은 이랬다. 비올 때면 엄마의 눈물이 떠오른단다. 엄마의 눈물은 아버지를 잃은 눈물이란다. 준호의 글은 이랬다. 비올 때면 아버지의 취한 모습 떠오른단다. 아버지가 취함은 엄마의 배신에서 온것이란다. 둘의 마지막 소원은 엄마, 아빠가 다시 맘씨 착한 아버지와 엄마를 만나서 흙길이 없는 아빠트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였다. 선생님은 애들이 쓴 작문을 읽으면서 많은 상념에 잠기였다. 심각한 문제였다. 아픈 호소였다. 리나와 준호의 글이 아빠엄마 없는 애들 마음을 절박히 대표하고있었다. 이 반에도 이런 애들이 많았다. 리나의 엄마와 준호 아버지, 얼마나 착하고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인가? 학교활동때마다 그들은 정성을 다 쏟았다. 남들처럼 잘살지 못하여 돈을 활활 쥐여뿌리지 못했고 차를 척척 내지 못하였지만 학교 구석구석에는 두분의 손길이 력력히 찍혀있었다. 마지막까지 제일 어지럽고 힘든 일에는 두분의 손길이 남아있었다. 학급대청소때마다 마지막으로 물걸레를 놓는 사람이 리나의 엄마였다. 마지막으로 못을 뽑고 그 자리를 알리지 않게 마무리를 하는 사람은 준호의 아버지였다. 착한 사람들이 두 아이를 위해서 결합했으면 했다.

허나 이것은 그저 머리에서 스쳐지나가는 생각일뿐이였다. 선생님이 감히 나서서 어째 볼 일이 아니였다.

4

오후 4절까지 다 보고 학교에서 애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하늘은 그냥 음침하고 비는 그냥 구질거린다. 학교대문앞에는 애들 마중을 나온 우산을 쳐든 어른들로 붐비였다. 자가용승용차들도 있었다. 자전거를 끌고 온 어른들도 있고 맨몸에 우산을 들고 서있는 어른들도 있었다. 각양각색이다. 리나와 준호는 나란히 학교대문을 빠져나왔다. 손에 들고있던 비옷을 머리우로 훌쩍 넘겨 책가방을 덮었다. 둘 다 마중 온 어른이 없었다. 리나의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다나니 저녁늦게야 퇴근한다. 준호 아버지는 요즘 일자리가 맞갖지 않아 대중없다. 리나와 준호는 승용차에 오르는 애들을 부러워 자꾸 훔쳐보면서 또다시 진창길에 들어서야 했다. 이때 갑자기 뒤에서 후닥닥 덮치는 소리가 났다. 준호가 어쩔 새 없이 허망 진흙탕에 가 너부러졌다. 아침에 준호 주먹에 코피 터졌던 애가 준호를 걷어찬것이였다. 준호는 얼굴이며 옷이며 바지며가 말짱 흙탕물이였다. 이때 리나가 아츠럽게 소리질렀다.

"왜 이래?"

"이 새끼, 내 코피 터지게 한 봉창이다."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